

### 장성 '새로운 도시 브랜드 찾기' 공모

브랜드 네이밍·BI 온라인 공모... 총상금 500만원

장성군이 민선6기 때 제정된 도시 브랜드 네이밍 '엘로우시티 장성'을 대체한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공모한다.

장성군은 내년 1월11일까지 '장성군 브랜드 네이밍·BI 공모전'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팀 참여도 가능하다.

브랜드 네이밍은 장성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이름을 짓는 공모다. 장성의 정체성을 담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자 내외의 문구를 착안하

면 된다.

도시 브랜드를 구상했다면 BI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줄임말로, 브랜드 이름이 포함된 로고, 서체, 캐릭터 디자인 등을 말한다.

네이밍 분야는 총 100만원, BI 분야는 총 400만원의 상금이 책정됐다.

브랜드 네이밍에 응모해야만 BI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선정은 하지 않는다. 수상작은 자체 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 함평,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주민·출향자녀 등 참여율 높아 좋은 평가

함평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성과나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지난 8월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성과나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마을 단위 평가에서 신광면 보전마을, 엄다면 흥용마을, 나산면 삼구마을 등 3개 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돼 내년도 사업비 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함께 평생 함평에 살아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평형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 사

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은 마을 수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 90개 마을이 참여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으뜸마을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연계 추진한 것이 종합평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원 받은 사업비 외에도 출향자녀 성금 모금, 영농폐기물 수거비, 마을 공동텃밭 수익금 등을 적극 활용해 마을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수상은 온전히 주민 스스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체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 나주,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5명 모집

나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자인 시민의 참여권 보장과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75명으로 공개모집(28명 이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26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추천(21명 이내) 등을 통해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기준 '주민 의견 검토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 점검',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등의 역할을 갖는다.

위원 인기는 12월 말 최종 선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공고일 기준(12월 1일) 나주시 관내 집 주소와 두고 있거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queenjh@ko.re.kr), 우편(나주시 시청길22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조승준 기자

## 장흥,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 박차

### 도시가스 공급·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 확대

### LPG용기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안전사고 예방

장흥군은 지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관로 구축과 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원 확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LPG용기 사용자 시설개선사업을 골자로 추진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등유, LPG,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는 타연료에 비해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로, LPG(20kg사용자 기준) 1,885.91원/m<sup>3</sup>, 등유 1,835.34원/m<sup>3</sup>보다 훨씬 저렴한 913원/m<sup>3</sup>으로 40%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015년 첫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장흥을 내 58% 공급을 완료하였고,

장흥군에서는 2023년 내 60%까지 보급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공급 배관을 연결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기존 가스 용기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LPG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면에서도 기존LPG용기 2116원/1kg에서 LPG배관망 사업으로 개선 후 1213원/1kg으로 사용량에 따라 20~40%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자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LPG용기 고무호스 파손 등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속배관 교체가 시급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 교체하여야 하고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 강종만 영광군수 "열병합발전소 소송, 대법원 간다"

###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소송 패소에 불복

영광군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9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관련'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소와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가 있었다"며 "군민들의 뜻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

랐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 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 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앞서 법원은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광군은 업체 측이 제기한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패소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 화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443명 모집

화순군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443명을 모집한다.

화순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으로 모집 인원 400여 명이 감소할 상황이었지만, 군은 1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수준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인원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공익형 사업 4213명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120명 ▲사랑채 카페 등 시장형 사업 10명 ▲3세대 보육돌봄비 등 자체형 사업 100명이다.

모집 대상은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과 자체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화순 거주 어르신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타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별 지정 신청일에 지정 장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복규 군수는 "정부 예산 삭감에도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규모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 담양,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 본격 시동

###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핵심 건의사업 46건·1조 176억 원

담양군이 민선8기 주요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발전을 견인할 2024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이병노 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정부·전남도의 정책기조에 부합한 핵심 사업들이 발굴됐으며, 정부 예산 순기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40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431억원)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480억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2,050억원) ▲담양을 도



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1,500억원) ▲담양 농산물 종합유통 플랫폼 조성(1,000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200억 원) ▲담양 애그테크(AgTech) 첨단농업기술단지 조성(20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296억 원) ▲행정복합타

운 조성(300억원) 등 총 46건, 1조 176억 원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국도비 건의사업 외에도 추가 사업을 발굴해나가면서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담양·조승채 기자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혜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中]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